

# 한나라, '대운하 공약' 수정 시사

### 이한구 정책위의장 "비판 제기된 부분 다시 검토"

한나라당이 경제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이명박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부터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측을 비롯해 범여권으로부터 과다 공세를 받아오며, 이 후보의 명실상부한 '대표공약'으로 자리잡은 운하 프로젝트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한구 신임 정책위의장은 28일 "대운하 큰 프로젝트다 보니 전체 그림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감이 있다"며 "그간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그간 강조되지 못했던 측면까지 고려, 객관적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한 뒤 보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근들의 잇단 '정책 보완' 시사에 이어 당의 정책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이 정책위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당 차원의 운하 프로젝트 재검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 프로젝트는 다소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다만 그것이 보완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점이었느냐 여부가 문제인데, 내 판단은 대운하 프로젝트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일부 수정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친환경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운하를 통해 이룰 것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운하의 경우 물 부족 대비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삼일교묘단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선승리를 위해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야 하고 대규모 재해, 재난 예방효과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간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까지 고려해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

야겠지만 많이 수정할 것은 없어 보이며, 상당한 선진형 프로젝트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촛불 불만 '부글부글'... 화합 진통 예고

이규택 "이재오 석고대죄해야"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택한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의 이명박 후보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그 동안 패자라는 점 때문에 '자숙 모드'를 유지했지만 전날 캠프 해단식에서 나온 서청원 전 대표의 강한 발언을 계기로 그 동안 '속에 담은' 울분과 회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에 대선을 앞둔 당 화합의 길목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 의원은 28일 서청원 전 대표가

전날 해단식에서 '박근혜 측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 이명박 후보측 이재오 최고위원을 겨냥해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가 되려 해도 시원찮은데 누구보고 건강하게 반성하라고 하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비판한 데 대해 "지지자들의 지금의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니겠느냐"고 공감함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후보측이 박 전 대표를 배척했다는 점을 작심하고 말한 데 대해 따끔하게 혼을 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가 접은 친박계 이규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당이 화합하고 나아가려면 패자에 대한 아량과 배려를 가져야 하는데 거꾸로 반성하라고 하니 이는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이자 상처에 소금을 뿌린 발언"이라며 "이 최고위원이 당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금이 오래 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박 전 대표가 해단식에서 당의 화합이나, 이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한나라 사무총장 이방호 비서실장 임태희 의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8일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방호(62·경남 사천·원쪽)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에 재선의 임태희(51·성남 분당동·오른쪽) 의원을 내정했다.

사무총장에 기용된 이 의원은 경선 캠프 조직위원장을 지내면서 취약한 '조직표'를 끌어 모으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임태희기자 tuim@

## DJ "대통합, 전직 대통령으로 할 말 한 것"

### '대선 개입' 논란 불식 시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대선 관련 발언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측이 28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대통령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대선개입' 논란을 불식하고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세계 어느 나라든 전직 대통령은 국가 중대사에 발언할 법적, 정치적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시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재연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측은 이날 최경환 공보비서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권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지나치다"며 "김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다만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대통령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국가 원로의 입장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민주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국가원로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는 양당제이며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일대일의 선거구도를 바라고 있으나, 범여권의 분열과 혼란으로 국민의 열려와 걱정이 커지게 되면서 김 전 대통령이 범여권의 대통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대통합을 통한 건강한 양당구도라는 것은 당위이며, 그것을 정치권이 제대로 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오죽 우리가 못했다면 노(老)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씀까지 했겠는가"고 자성문을 썼다.

그러나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어른이 집안 격정하듯이 국가원로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말씀한 것으로 본다"며 "신당의 대권주자들이(DJ를) 너무 자주 찾아붙고, 턱달 수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 전파함으로써 김 전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이 문제"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에서 여러 변명을 했다"면서 "국가 원로로서 적절치 못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기자 tuim@kwangju.co.kr /연합뉴스

한나라 30일부터 구려서 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

## 민주, 10월16일 대선후보 확정

### 30~31일 예비후보 등록...내달 20일부터 경선

한나라당은 오는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구려서 지리산가족호텔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대선필승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당 대통령 후보와 대외최고위원, 중앙당 당직자, 국회의원, 각 지역 당협운영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경선 이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간 화합을 도모하여 대선필승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대선후보가 10월16일 확정된다.

민주당은 28일 대선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30~31일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확정일(14일)보다 이를 늦는 것이다.

민주당은 9월20일 제주를 시작으로 ▲29일 전북 ▲30일 강원·대구·경북 ▲10월6일 부산·경남·울산 ▲7일 대전·충남·충북 ▲13일 서울·경기·인천 ▲14일 광주·전남 등 매주 토요일 순회 투표를 실시, 16일 대의원 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경선일정이 상당부분 겹쳐 선거관리위탁을 받은 중앙선관위가 일부 지역별 순서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세부일정을 조율중인데다 일부 지역의 투표소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매일 핵심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통해 최종 합격 점점"

개강 9월 3일

노무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자격증과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www.gjserom.com

227-8003 (주)형 성원빌딩 4F

971-0002 (주)형 성원빌딩 4F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풀이(특수프린트물)

개강 9월 3일(주,아)

www.gjserom.com

361-8111

529-8111

## 현대공인중개사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현대가치 높음

급히 구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062-371-1900

##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주택매매

0261-8949

##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02-587-7400

## 고시원 매매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최저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011-604-5239

## 크로바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상가 임대

0432-4560

##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시입니다.

062-526-2500